월요광장

야구가 뭐라고!

문 요 한
정신과 의사

며칠 전 일이다. 집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 한다. "아니, 왜 그렇게 선수들한테 화를 내.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지. 응원하려고 보는 거 아니야." 순간 멈칫했다. 나도 모르게 부진한 선수들을 보며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혹은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다. 난 평소보다 흥분하고 있었다. 코리안 시리즈라서 시즌 경기보다 더 긴장하고 더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그날 경기는 결국 기아가 지고 말았다. 아쉬움을 넘어 기분이 상해 맥주를 꺼내 마셨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야구가 뭐라고!' 사실 기아라는 특정 팀만을 응원하는 것이 우스울 때도 있다. 과거 해태와 달리 지금 기아에는 딱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 고향의 연고 팀이라는 이유라는 것밖에는 없다.

주변에는 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야구 광팬인 후배가 있다. 그에게 한 해는 야구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뉜다. 한 주의 시작은 야구 경기가 시작되는 화요일이다. 그는 겨울 내내 야구만 기다린다. 시즌이 시작되면 이내 야구가 삶을 지배한다. 심하게 말하면 야구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같다고나 할까. 하루 종일 야구 중계만을 기다리고 날이 흐리기라도 하면 경기가 열리지 않을까 봐 초조해한다. 1박 2일로 지방 원정까지 다녀올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 결과에 따라 기분 또한 크게 좌우된다. 이기는 날은 행복하지만 지는 날은 죽을상이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역전패라도 당한 날이면 분이 안 풀려 줄담배를 피워 대기도 한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괜히 짜증을 내고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풀려고 야구를 보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야구를 보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은 헷갈린다. 그 역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야구를 끊은 적도 있다. 물론 번번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올해는 괜찮았을 것이다. 응원하는 기아 팀이 정규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승을 했어도 기아의 올해 전적은 87승 1무 56패이다. 비오는 날을 빼더라도 87일은 기분 좋았지만 56일은 우울하고 화난 날들이었다. 그러니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해는 어떠했겠는가!

팬이 이 정도라면 선수나 감독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나 될까?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즐기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스포츠는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지역, 더 나아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즐길 수가 없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코치나 감독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기는 선수가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감독의 몫이기 때문이다.

성적이 조금만 부진해도 인터넷에서는 감독을 바꾸라는 항의가 빗발친다. 파리 목숨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며칠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었던 슈틸리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독 시절을 이렇게 평가했다. "승률이 70%였으니 10점 만점에 7점 주고 싶다. 그러나 한국에서 7점은 부족하다. 10점을 받아야 만족한다. 한국은 실패에 관대하지 못하다." 물론 산술적인 승률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실망스러운 경기가 많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가 한 마지막 말이 마음에 딱 걸린다. "한국은 실패에 관대하지 못하다!"

왜 나는 좀 더 편하게 경기를 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스포츠를 좀 더 즐기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선수들의 실패에 관대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스포츠에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팀에 응원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다. 대리 만족의 욕구와 '동일시' 기제 때문이다.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대상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삶이 팍팍할수록 술에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대리만족의 대상이 사람이나 집단이 되면 우리는 그 대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기대는 높아진다. 나의 이상을 상대에게 투영하고 점점 나와 대상의 구분은 희미해져 간다. 자신의 못 다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응원하는 선수나 팀의 승리를 통해 높이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잊어버린다. 대리 만족의 대상 역시 우리처럼 '한 인간'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그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고,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응원다운 응원을 해 보련다. 잘할 때에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더라도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고 싶다. 내 자신에게도!

법조칼럼

'요두출수(搖頭出手)'와 인간관계

김 정 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는 최고의 역사서이자 인간관계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원전 91년에 쓰인 사기에서 언급된 인간과 인간관계의 모습은 2100여년이 세월이 흐른 현재에도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시공간을 초월한 녹슬지 않은 현재성과 통찰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시대로 진입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간관계의 모습은 종이도 발명되지 않아 죽간에 사기를 편찬했던 2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관계에서 일상의 평온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는 삶이 현재의 시대정신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항상 예외 없이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인간관계는 깊어질 수 없고, 인간적인 이격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두출수(搖頭出手)'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벗이 권하는 술을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머리를 흔들면서도 손은 이미 술잔을 받기 위해 나가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 말은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몇 해 전 광주의 사직공원 어느 통기타 가게 벽에서 '요두출수'라는 말을 처음으로 접했고,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서도 봤는데 허영만 만화가가 창작한 말인지 그 또한 어디서 인용한 말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요두'는 자신의 주관적 상황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이성'을 상징하고, '출수(出手)'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성을 상징하는 '요두'와 감성을 상징하는 '출수'가 이성과 감성이 함께함으로써 그 안에서 중용이 되고, 조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나 우리들 자신의 삶이나 이성인 '요두'와 감성인 '출수'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다. 유한자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은 이성적이어야 할 때 감성을 앞세우거나 감성적이어야 할 때 이성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있고, '요두'해야 할 때 '출수'하고 반대로 '출수'해야 할 때 '요두'하는 시행착오를 연속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서는 진정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요두'하면서 거절해야 할 일도 많다. 반대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수'하면서 허락해야 할 일도 많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이 무엇이든 머리를 흔드는 '요두'를 배려 없다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고, '출수'를 절제 없다고 비난할 일만도 아니다. 나 자신은 '출수'하려고 노력해야하고, 상대방이 '요두'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은 '요두'하려고만 하고 상대방에게는 '출수'하기만 바라는 모습으로는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요두'만 있으면 자기희생이 없이 거절만 하는 것 같고, '출수'만 있으면 술만 좋아하는 술꾼과 같고, 그래서 '요두'와 '출수'는 늘 함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저 '요두(搖頭)'로만 머무른다면 인정 없고 배려 없는 이기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로 평가되기 쉽고, '요두(搖頭)' 없는 맹목적인 '출수(出手)'는 그저 절제 없음과 내지르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두출수(搖頭出手)'라는 말이 비단 술자리에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네 삶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말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다.

'요두출수(搖頭出手)'라는 말로 성찰해 보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돈' 때문에 만난 인간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 때문에 만난 인간관계도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없어지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만난 인간관계는 서로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유지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과 인간관계는 결국 '진정성 있는 마음'이 문제이고 관건이다.

기 고

지역감정 해소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김 재 형
조선대 법과대학 학장·새벗포럼 이사장

최근 지역 감정과 관련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직적으로 조장한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영호남의 정치인들에 의해 각각 '인사와 예산의 TK 홀대론',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적극 정부 요직에 중용하면서 차관급 이상 인사 79명 중에서 호남 출신 인사가 22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34.2%(27명)에 비하면 아직 낮기는 하지만 이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향된 수치이다.

그러나 재계의 영남 편중 현상은 아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매출 500대 기업 CEO 중 영남 지역의 CEO는 34.1%(164명)이고 호남 지역의 CEO는 9.1%(44명)에 불과하다. 재계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호남 출신 인사에 대한 차별이 행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역감정 등을 포함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평론가 윌리엄 리안(William Ryan)의 접근 방법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접근 방법에는 '예외적인 방법'(exceptionalism)'과 '보편적인 방법'(universalism)이 있다. 예외적인 방법이란 어떤 특수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부분적인 처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법이란 법·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예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감정 해소책은 거의 모두 '예외적인 방법'에 속한다.

호남 출신 인사의 중용, 영호남 시·군·학교 간 자매결연 맺기, 영호남의 문화교류 확대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성공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예외적인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현 정권과 반대의 성향을 지닌 정권이 탄생되면 또 역차별이 생기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조치들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방법'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방법의 성공적인 사례로 미국의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제정·시행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96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차별 금지법에 속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미국의 인종, 성별, 종교, 지역 편견은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월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민권법과 유사한 '차별 금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제안사유를 보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국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에 의원 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바 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폐기되고 말았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확인한 바 있다. 어느 정부보다 지역감정 해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 해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새 정부에서 이 법안을 다시 다듬어 국회에 상정시키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社 說

'박근혜 7시간' 조사까지 적극 방해했다니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안건 채택이나 활동 기간 연장, 별정직 공무원 채용까지 방해하려 한 것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장 지시 사항 및 대책 문건'에 따르면 2015년 10월 30일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 여당 추천 위원들과 협의해 해당 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1일에는 "특조위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을 공모하고 있는데 신원 조회 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인사들을 잘 걸러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는가 하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저지, 언론 보도 방해를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은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핵심 사안이다. 현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하고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들 문건은 청와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를 위해 조직적인 공작에 나섰음을 보여 준다. 권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적폐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민 울리는 수협 비리 근절할 대책 없나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려 사행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을 돌리는 데 쓰는 등 전남 지역 수협 직원들의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조합들이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횡령액 회수도 소홀히 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180억 원)와 11건의 배임사고(120억 원)가 발생했는데, 횡령 45건 중 11건(24%)은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또한 지난해 1년 동안 금융사고는 19건(4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16건에 사고 액수는 77억 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역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은 중앙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비리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 요구액이 179억 원인데 37억 원만 회수했다. 회수율이 20.5%다"면서 "농협의 회수율이 59%인 것에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흥군 수협 4급 직원은 1년여 동안 13억 원을 빼돌려 불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됐으며, 신안군수협의 조합장과 임직원 10명은 고객 돈 2억 원으로 명절 선물을 보냈다가 형사 고발됐다.

수협 조합의 빈번한 내부 금융 사고는 지역 조합들의 엉성한 관리 시스템과 수협중앙회의 느슨한 지역 조합 감독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조합원의 금융 재산을 빼돌린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반드시 손실액을 회수해 범죄 의지 자체를 꺾어야 한다. 지역 조합을 상대로 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無 等 鼓

'남한산성'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작가 김훈은 소설 '남한산성'에서 치욕스러웠던 병자년(1636) 역사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압록강을 건넌 청의 무리가 한양으로 물밀듯이 내려오는 상황이었다. 사면초가에 빠진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고, 이후 47일간의 시간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소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내몰린 조선의 운명을 정치하게 그려낸다. 지난 2007년 초판이 발행된 지 10년 만에 100쇄를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동명의 영화가 개봉돼 원작의 감동을 영상 언어로도 느낄 수 있다.

소설과 영화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에 초점을 맞춘다. 주화파(최명길)와 척화파(김상헌)의 치열한 논쟁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부딪힌다. 죽음으로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파와 치욕스러울망정 살아서 생을 담보하자는 주화파의 논쟁은 무참하고 가혹하다.

현대사에서도 그와 같은 고통스럽고 참담한 시간이 있었다. 80년 5월, 공수부대의 도청 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민군들은 절체절명의 순간과 맞닥뜨려야 했다. 죽음으로써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자는 의견과, 더 이상 희생을 치르기보다 살아서 진실을 밝히자는 의견 말이다. 물론 역사적 배경이 달라 '남한산성'과 '오월 광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다. 그럼에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생과 사의 운명과 마주해야 했던 극한의 상황은 그 자체로 처참하면서도 비극적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작금의 시대 상황 또한 병자년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난마처럼 얽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리아 패싱' 논란은 고립무원에 빠진 우리 정부의 딜레마를 말해 준다. 혹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친미와 반미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한다.

김훈은 '남한산성'에서 다시 이렇게 읊조린다.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안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쳤다"고.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갇힌 성안에서 싸우는 일' 아닐까.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